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The exchange aspects and meanings of King Gyeongdeok and monk

저자 (Authors)	전보영 Chun, Bo-Young
출처 (Source)	사학연구 (112) , 2013.12, 41-77(37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12) , 2013.12, 41-77(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08113
APA Style	전보영 (2013).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사학연구(112), 41-7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2 16: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전 보 영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머리말

I. 경덕왕대 사회상황과 불교계의 동향

II. 전반기 승려교류의 특징

III. 후반기 승려교류의 변화

맺음말

● 투고일: 2013. 11. 18.

● 심사일: 2013. 11. 19.

● 게재확정일: 2013. 12. 3.

요약

이 글에서는 景德王대 활동한 승려들, 그중에서도 경덕왕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던 승려들의 사례를 통해 당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상사적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덕왕이 승려들과 교류한 시기와 목적, 그리고 형태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경덕왕은 재위기간 동안 중대 다른 왕들보다 많은 승려와 교류했고, 횡수와 목적, 그리고 형태가 다양했다. 승려들과의 교류 사례는 경덕왕 13년(754) 이후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이와 함께 재해와 관직교체가 빈번해지고 佛事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교류의 형태와 문제해결의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경덕왕대 사회변화와 궤를 함께 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이 당시 사회의 정치와 사상경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재위 전반기에 만난 승려인 眞表와 大賢, 그리고 法海의 경우 기존의 중대 사회에서 고승을 등용했던 모습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변화하는 사회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펴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齋나 講說 등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왕실 불교신앙의 형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재위 13년 이후 만난 승려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새로운 승려를 찾고,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表訓에게는 신이한 능력을 요구하여 후사문제를 해결했고, 중국의 도교 성지에서 천관보살신앙을 받아들인 元表에게 法施하기도 했다. 또한 月明과 忠談을 만나 향가를 짓게 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이러한 경향은 경덕왕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정치·사회적 상황과 불교의 대중화와 더불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즉 점차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경덕왕은 문제해결과 사회 안정을 위해 불교신앙 뿐만 아니라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에 알맞은 승려를 이용해 사회의 안정과 통치에 힘을 얻고자 한 것이다.

주제어 : 경덕왕(景德王), 승려교류(僧侶交流), 진표(眞表), 대현(大賢), 법해(法海), 표훈(表訓), 원표(元表), 월명(月明), 충담(忠談)

머리말

경덕왕대(742~765)는 신라 중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기다. 이 글에서는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 사례를 주목했다. 경덕왕대는 중대 다른 왕들에 비해 승려와의 교류 횟수가 높았고 그 목적과 형태가 다양했다는 분명한 특징이 보인다. 특히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교류의 양상이 경덕왕대 사회변화와 궤를 함께 하는 모습이 보여 흥미롭다.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을 통해 시대상황과의 관계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경덕왕대의 정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왕권과 관련해서 전제왕권이 강했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¹⁾ 점차 귀족세력과의 관계가 경덕왕대 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외척과 진골귀족세력의 관계 조절을 통해 왕권강화를 이루었다는 연구가 이어졌으며,²⁾ 왕비교체를 둘러싼 왕과 귀족의 세력다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³⁾ 이외에도 녹읍부활의 의미, 한화정책시행의 영향력과 의미, 시중과 상대등 임명자의 세력 파악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신라 중대정치상황 내에서의 경덕왕대와 경덕왕을 주목했을 뿐 정작 주체로서 세밀하게 파악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과 정치상황에 대한 기준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징이 되는 성격을 규명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불교사적인 면도 마찬가지다. 경덕왕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다양한 불교사상과 신앙이 존재했다. 화엄종과 법상종 등 다양

-
- 1) 李基白, 1974,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의 變革」, 「景德王과 斷俗寺 怨歌」,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金壽泰, 1996,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 2) 申政勳, 2000, 「新羅 景德王代 王權強化策의 性格」, 『동서사학』 6·7합집
 - 3) 朴海鉉, 2003, 『新羅 中代 政治史 研究』, 국학자료원

한 교학이론이 존재했고 체계화 되었으며, 승려들의 저술이나 연구 활동도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⁴⁾ 또한 미륵신앙·아미타신앙·약사신앙·문수신앙·법화신앙·화엄신앙 등 다양한 불교신앙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으며, 불교 대중화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결사들도 다수 등장했다.⁵⁾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불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도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⁶⁾ 이렇게 다양한 불교의 양상과 이에 대한 연구는 경덕왕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왕권과 사회상황의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풍부한 사상적인 흐름은 오히려 불교 상황에 대한 성격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덕왕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와 사상적 흐름의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경덕왕대에 활동한 승려들, 그중에서도 경덕왕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던 승려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상사적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덕왕이 승려들과 교류한 시기와 목적, 그리고 형태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경덕왕대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이 경덕왕의 정국운영과 사회변화가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으로 정리된다면 경덕왕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 12, 251쪽

5) 정병삼, 1996, 「9세기 新羅 佛教 結社」, 『韓國學報』 4, 202~205쪽

6) 박남수, 2013, 「신라 大道署의 정비과정과 僧政體系의 변화」, 『韓國思想史學』 44, 127~128쪽

I. 경덕왕대 사회상황과 불교계의 동향

경덕왕의 재위 기간은 즉위과정의 한계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순탄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전하는 기록상 왕이 병에 걸리거나 반란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없었고 혜공왕이라는 태자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계상의 문제도 부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기간동안의 정치가 순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운영의 정도를 규명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존의 연구도 전제왕권의 有無와 외척과의 관계, 그리고 왕당파와 반전제왕권파의 세력다툼 문제 이외에는 특별히 논의 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

다만 경덕왕 재위 후반에 재해와 관직교체가 집중되고 있는데, 점차 혼란스러워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경덕왕대의 많은 재해기사는 혼란스러운 정국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⁷⁾ 정치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재해기사와 왕권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잦은 관직 교체 기사를 경덕왕대의 사회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경덕왕대 재해기사와 관직 교체 기사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신형식, 2011, 『『삼국사기』 본기 기사내용의 개별적 검토』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景仁文化社, 271~272쪽

【표 1】『三國史記』景德王代 재해 및 관직교체 기사

연도	재해기사	관직 교체 기사
경덕왕 3(744)	겨울, 궤이한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 크기가 다섯 말 그릇만 했고 열흘 만에 사라졌다.	봄 정월, 이찬 유정을 중시로 삼았다.
경덕왕 4(745)	4월, 수도에 우박이 내렸고 크기가 달 같만 했다. 5월, 가물었다.	봄 정월, 이찬 김사인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5월, 중시 유정이 물러나니 이찬 대정을 중시로 삼았다.
경덕왕 6(747)	3월, 진평왕릉에 벼락이 쳤다. 가을에 가물었고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다.	-
경덕왕 7(748)	봄 정월, 친구가 땅에 떨어졌다.	-
경덕왕 8(749)	봄 2월, 폭풍으로 나무가 뽑혔다.	-
경덕왕 9(750)	-	봄 정월, 시중 대정이 물러나니 이찬 조량을 시중으로 삼았다.
경덕왕 13(754)	여름 4월, 수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달같만 했다. 8월, 가물고 누리가 있었다.	8월, 시중 조량이 물러났다.
경덕왕 14(755)	-	이찬 김기를 시중으로 삼았다.
경덕왕 15(756)	여름 4월, 큰 우박이 내렸다.	-
경덕왕 16(757)	-	봄 정월, 상대등 사인이 병으로 물러나니 이찬 신충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경덕왕 17(758)	가을 7월, 큰 천둥번개가 쳤고 사찰 16 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봄 정월, 시중 김기가 죽으니 이찬 염상을 시중으로 삼았다.
경덕왕 18(759)	3월, 혜성이 나타났다가 가을이 돼서야 사라졌다.	-
경덕왕 19(760)	봄 정월, 도성 동쪽에서 북소리와 같은 것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귀신의 북소리라고 했다.	여름 4월, 시중 염상이 관직에서 물러나니 이찬 김용을 시중으로 삼았다.
경덕왕 20(761)	봄 정월, 초하루에 무지개가 해를 뚫었고 해에 귀고리 같은 것이 생겼다. 여름 4월, 혜성이 나타났다.	-
경덕왕 22(763)	가을 7월, 수도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다.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용이 물러났다.

경덕왕 23(764)	3월 혜성이 동남쪽에 나타났고, 용이 양산 아래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다. 겨울 12월, 11일에 크고 작은 유성이 나타났는데 보는 사람이 그 수를 셀 수 없었다.	봄 정월, 이찬 만종을 상대등으로 삼고 아찬 양상을 시중으로 삼았다.
경덕왕 24(765)	여름 4월, 지진이 일어났다. 6월, 유성이 별자리를 범했다.	-

위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기사는 재위 13년 이전에 5건, 이후에는 9건이고, 관직교체기사는 이전 3건, 이후 7건이다. 경덕왕 13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비해 재해와 관직교체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재위 후반기로 가면서 빈도가 높아졌으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대부분 재해가 있었던 다음 해나 같은 해에 시중이나 상대등의 교체가 있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⁸⁾ 우박·천둥 번개·폭풍·지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는 흉년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곧 기층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⁹⁾ 즉, 재해가 빈번하여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왕권과 귀족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한 잦은 관직교체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경덕왕 13년을 기점으로 불사와 승려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경덕왕의 불사내용과 교류했던 승려를 표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8) 신형식은 혜성 출현 전후의 사건정리에서 혜성의 출현은 사건의 결과보다는 그에 대한 예고의 뜻이 컸다고 분석했다(2011,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景仁文化社, 280~281쪽). 경덕왕 대에도 3년, 7년, 18년, 20년, 23년에 혜성이 나타난 이후 시중이나 상대등이 교체되었고, 24년에 유성이 별자리를 범한 이후 경덕왕이 사망하였다.
 - 9) 『三國遺事』 「向得舍知割腹供親 景德王代」條는 연도를 알 수 없지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아버지를 봉양했다는 기록을 통해 경덕왕대 흉년으로 인해 기층민의 삶이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경덕왕대의 불사활동과 승려 교류

연도	佛事内容	交流僧侶
경덕왕 4(745)	민장사에 전담과 재폐보시	-
경덕왕 5(746)	15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 허락	-
경덕왕 10(751)	김대성이 불국사 짓기 시작	-
경덕왕 11(752)	-	진표
경덕왕 12(753)	-	대현
경덕왕 13(754)	가을 7월 영흥사와 원연사 수리	법해
경덕왕 14(755)	분황사 약사여래 동상 주조	-
경덕왕 16(757)	대가람인 백월산남사 창건하기 시작	-
경덕왕 17(758)	-	표훈
경덕왕 18(759)	원표의 가지산사 창건 시 경덕왕이 장생표주 세워줌 ¹⁰⁾	원표
경덕왕 19(760)	-	월명
경덕왕 23(764)	영묘사의 장육을 개금. 비용으로 조 이만삼천칠백석 사용	-
	7월 15일에 절 완성. 미륵존상을 조성하여 금당에 봉안하고 현신성도미륵지전, 미타상을 강당에 봉안하고 현신성도무량수전이라고 함	-
경덕왕 24(765)	만불산을 만들어 당에 보냄	충담
미상	백률사 행차 및 굴불사 창건	영여

【표 2】 11)를 살펴보면 13년 이후에 불사의 횟수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1년(752)에 眞表를 시작으로 12년(753)에 大賢, 13년(754)에 法海를 만났고 이후 17년(758)에 表訓, 18년(759)에 元表, 19년(760)에 月明, 24년(765)에 忠談 등의 승려와 교류를 이어간 모습이 보인다. 또한 교류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迎如와의 교류 등 승려와의 교류가 자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라 왕실과 승려와의 교류 혹은 등용은 불교가 수용된 중고기 이래로 중대에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경덕왕대와는 차이가 있

10) 『宋高僧傳』 「唐高麗國元表傳」; 「普照禪師彰聖塔碑」

11) 경덕왕 4년, 10년, 11년, 12년, 13년(法海), 14년, 16년, 17년, 19년, 23년, 24년, 미상은 『삼국유사』의 기록이고 5년, 13년은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다. 경덕왕이 승려들을 만난 목적과 그 형태는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가뭄 등의 국가 문제 해결, 후사문제, 사회의 안정 등 이전보다 진취적인 목적이 포함되었고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이점은 경덕왕대의 사회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3】은 중대 각 왕들이 만났던 승려의 횟수와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신라 중대 왕실의 승려교류

시기	『三國史記』	『三國遺事』
武烈王 (654~6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효: 소정방의 그림에 대한 해석 자문 • 원효: 요석공주와 결혼
文武王 (661~6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년 정월, 신해법사를 정관대서성으로 삼음 • 14년 9월, 의안법사를 대서성으로 삼음 • 16년 2월, 의상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 창건 • 21년 6월, 왕이 경성을 새로 쌓고자 의상에게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랑: 문두루비법으로 당군 퇴치 • 경흥: 국사로 임명하고자 함 • 의상·지의법사, 명랑: 자문 및 사천왕사창건
神文王 (681~6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흥: 국로 임명 • 혜통: 독룡 퇴치
孝昭王 (692~702)	원년 8월, 고승 도증이 당에서 돌아와 천문도 받침	혜통: 국사 임명
聖德王 (702~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6월, 크게 가물자 이효를 불러 기우 • 15년 6월, 가물자 왕이 다시 이효를 불러 기우 	-
孝成王 (737~742)	-	-
景德王 (742~7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표: 보살계 수계 • 대현: 『금광명경』 강설 • 법해: 『화엄경』 강설 • 영여: 계를 올림 • 표훈: 후사문제 해결 • 원표: 불사 및 시주¹²⁾

경덕왕과 승려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명: 도솔가 창작 • 총담: 안민가 창작
惠恭王 (765~780)	-	-

우선 중대 왕실의 승려교류의 빈도를 살펴보면 무열왕 2회, 문무왕 7회(중복), 신문왕 2회, 효소왕 2회, 성덕왕 2회였으며 효성왕과 혜공왕은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경덕왕은 『송고승전』에 기록된 원표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8회 승려와 교류하였다. 이는 문무왕대의 중복된 사례를 제외한다면 중대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수라고 할 수 있다.

교류의 목적과 형태 역시 다른 양상이 보인다. 중대의 왕들의 경우 대부분 자문과 관직임명을 위주로 왕실에서 등용했다면 경덕왕은 교류의 경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기존의 교류형태가 왕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경덕왕대는 왕실 이외의 장소도 등장한다.

우선 무열왕과 元曉의 만남은 자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라가 唐나라군과 연합할 때 蘇定方이 보낸 그림의 해석을 요청했다. 그리고 원효와 요석공주의 결혼을 위해 원효를 불렀다. 문무왕은 信惠法師와 義安法師를 관직에 임명하였고, 憬興을 國師로 임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자문 및 불사의 경우로 당나라군 침입 시 明朝의 문두루비법을 이용하였으며, 義相에게 부석사를 짓도록 하였고 자문을 구하였다. 문무왕의 경우 경덕왕 다음으로 횡수가 높지만 실제 내용은 중복되어 있어서 경덕왕과는 차이가 있다. 신문왕대의 경우 憬興의 國老관직 임명과 독룡을 쫓기 위한 惠通에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효소왕대는 왕녀의 병을 치료한 혜통을 國師로 임명했고, 당에서 돌아온 道證이 天文圖를 받쳤다. 성덕왕은 祈雨를 위해 理曉法師를 두 번 궁으로 불렀다. 반면 경덕왕대는 진표에게 보

12) 【표 2】에서는 경덕왕의 승려교류가 총 8회이고 【표 3】에서는 총 7회이다. 이것은 元表에 대한 기록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아닌 「普照禪師彰聖塔碑」과 『宋高僧傳』, 『唐高麗國元表傳』에만 있기 때문에 총계에 차이가 있다.

살계를 받았고, 대현과 범해에게는 각각 내전과 황룡사에서 강설하도록 요청했으며, 표훈에게는 후사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원표가 있는 절에 시주했으며, 궁궐이 아닌 장소에서 월명과 충담을 만나 향가창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승려들과 교류의 형태를 띠고 있어 다른 왕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경덕왕의 승려교류형태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중고기 신라 왕실의 불교신앙에 대한 『三國史記』의 기록은 대부분 강설과 의례가 중심이었는데, 경덕왕대는 그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고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興王 33년(572)에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위해 외부 절에서 八關筵會를 7일간 열었다.¹³⁾

眞平王 35년(613)에는 수나라의 사신 王世儀가 황룡사에 이르자 百高座會를 열고 원광 등에게 佛經을 강설하게 했다.¹⁴⁾

善德王 5년(636)에는 왕이 병이 들자 황룡사에서 百高座會를 열어 『仁王經』을 강론하게 하였으며 100여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 했다.¹⁵⁾

이와 같이 중고기 왕실에서는 국가의 일이나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등 중요한 시점에는 대부분 강설이나 의례의 공식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중대왕실에서도 이어졌는데, 불교 신앙과 함께 創寺·建塔·鑄鐘·講說·設齋 등의 공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불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⁶⁾ 또한 승려들과 만날 때도 자문과

13) 『三國史記』 卷4, 眞興王

14) 『三國史記』 卷4, 眞平王

15) 『三國史記』 卷4, 善德王

16) 김상현은 信佛·佛事·成典寺院 등의 예를 들어 신라 중대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

강설, 또는 관직 임명 등 기존의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경덕왕 역시 재위 초반에 교류했던 진표와 대현, 그리고 법해와 교류할 때까지는 수계·강설 등 기존의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해 이후 표훈과의 교류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류가 등장하고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덕왕대의 승려교류가 이전과는 다르게 횡수가 높고 목적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경덕왕대의 불사는 재위 13년인 754년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정치와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13년을 기점으로 승려교류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즉, 기존의 중고기와 중대왕실에서 나타난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덕왕대의 사회현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다음 장부터는 경덕왕과 승려들의 교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목적과 형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전반기 승려교류의 특징

경덕왕이 처음으로 교류한 승려는 眞表이다. 진표는 8세기 중엽 이후부터 하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승려로, 다른 승려들에 비해 진승 기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¹⁷⁾ 이에 다양한 해석과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⁸⁾ 『삼국

교를 신앙하고 후원했으며 이 시기 정치에 미친 불교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1999, 「新羅 中代の 佛敎思想 研究-王室의 佛敎信仰을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85, 139~141쪽).

17) 『三國遺事』 卷4, 義解 「眞表傳簡」, 「關東楓岳鉢淵菝石記」가 있으며 1199년 鉢淵寺

유사』 「진표전간」조에 따르면 진표는 718년 완산주 만경현에서 태어나서 12세에 출가했고,¹⁹⁾ 경덕왕을 만난 것은 752년이다. 경덕왕은 진표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에게 계를 받고 金山寺에서 매년 壇을 열어 法施를 베푼다는 말을 들은 이후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았다.

에 세운 『鉢淵菴 眞表律師 眞身骨藏立石碑銘』이 『朝鮮金石總覽(上)』 『乾鳳寺本末事蹟 楡岾寺本末寺誌』 각각에 「金剛山鉢淵寺開闢祖師眞表律師事蹟碑」로 실려 있으며 『三國遺事』의 「關東楓岳鉢淵菴石記」는 無極이 일연의 것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 요약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리고 988년 宋 贊寧이 편찬한 『宋高僧傳』에 「唐百濟國金山寺眞表」가 실려 있다(김남윤, 1997,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論叢』 78, 86쪽; 박미선, 2008,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9, 224쪽).

- 18) 전승기록에 증점을 둔 金煥泰, 1972,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研究」 『佛敎學報』 9; 金煥泰, 1975,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思想」 『崇山朴吉眞博士華甲記念 韓國佛敎思想史』; 李基白, 1986,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佛敎史研究』, 一潮閣; 蔡印奩, 1986, 「新羅 眞表律師 研究1-修讖의 行적과 계보」 『佛敎學報』 23; 채인환, 1987, 「진표유사연구2-점찰의 계법과 방법」 『佛敎學報』 24; 채인환, 1988, 「3-삼회계법의 확립과 교화」 『佛敎學報』 25; 조용현, 1994, 「진표유사와 미륵사상의 특징」 『韓國思想史學』 6; 金南允, 1995, 『新羅 法相宗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震檀學報』 82; 尹汝聖, 1998, 『新羅 眞表와 眞表系佛敎 研究』,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김상현, 1999, 「진표의 미륵신앙」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등이 있고, 종파 상의 구분에 따라 범상종으로 보는 文明大, 1974, 「新羅 法相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 『歷史學報』 62-63; 김두진, 1981, 「고려초 범상종과 그 사상」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최병현, 김남윤, 1992, 「고려중기 불교와 범상종」 『한국사론』 28 등이 있으며,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김재경, 1987, 「신라 경덕왕대의 미륵신앙」 『경북산림대논문집』 3; 윤여성, 1989, 「신라 진표의 미륵신앙과 금산사」 『전북사학』 11-12; 김혜완, 1992, 「신라 하대 미륵신앙」 『성대사립』 8; 장지훈, 1997, 『한국고대미륵신앙연구』, 집문당; 정미숙, 2000, 「眞表의 彌勒信仰과 理想社會論」 『지역과 역사』 7등이 있다. 그리고 점찰법회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 박광연, 2006,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敎수용」 『韓國思想史學』 26; 박미선, 2008,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9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진표의 국적문제에 대해 재고찰한 조경철(2013, 「『삼국유사』 「진표전간」의 진표행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4)의 연구와 전승기록 중 「關東楓岳鉢淵菴石記」를 「金剛山鉢淵寺開闢祖師眞表律師事蹟碑」와 비교한 김홍삼(2013, 「無極의 「關東楓岳鉢淵菴石記」 撰述」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4)의 연구가 있다.

- 19) 「關東楓岳鉢淵菴石記」에는 73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租 7만 7천 섬을 주었다. 왕비와 외척들도 모두 계품을 받고 비단 5백단과 황금 50냥을 시주하였다. 진표는 이것을 모두 받아서 여러 산사에 나누어 보시하고 널리 불사를 일으켰다.²⁰⁾

당시 신라의 불교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던 때였다. 우선 당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여러 불교이론들이 종합되고 체계화되었다.²¹⁾ 교학이 크게 발전했고 왕실불교와 교학적 성격이 짙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강설을 요청하는 등 중고기와 중대의 문제해결방식과 같은 형태로 승려들을 등용했다. 경덕왕의 경우 역시 재위 5년에 국가행사를 열어 150인에게 출가를 허용하는 의식을 행했고²²⁾ 재위 중반까지도 강설이나 제 등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때는 불교계의 대중화 경향과 그에 대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²³⁾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20) 『三國遺事』 卷4, 義解「眞表傳簡」

21)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佛敎學研究』 12, 251쪽

22) 이 기록은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五年에 “春二月 遣使入唐賀正 并獻方物 夏四月 大赦 賜大酺 度僧一百五十人”이라고만 되어 있어 度僧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三國史記』의 다음과 같은 기록과 비교하여

善德王 五年 三月條 “王疾 醫禱無效 於皇龍寺設百高座 集僧講仁王經 許度僧一百人” 興德王 五年 夏四月條 “不豫祈禱 仍許度僧一百五十人”

眞聖王 二年 三月 戊戌朔條 “日有食之 王不豫 錄囚徒 赦殊死已下 許度僧六十人 王疾乃瘳”

대부분의 경우 왕이 병에 들었을 때 大赦하고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경덕왕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의식을 행하여 안정을 얻고자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3) 최연식은 8세기 중엽 이후 등장한 하대 불교인 의상계 화엄학과 진표계 미륵신앙은 종교적 실천수행의 실천적경향이 중시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교학적이고 이론적 연구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였다(2005, 앞의 논문, 262~263쪽).

한 예가 경덕왕 13년(754)~14년(755)에 걸쳐 이루어진 화엄 사경이다. 「新羅 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寫經 跋文」을 보면 緣起法師의 발원으로 화엄사에서 지방인 12명, 왕경인 7명에 의해 화엄경 사경이 이루어졌다. 물론 사경 자체를 지방민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화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사경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인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과 의미를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康州의 萬日念佛會,²⁴⁾ 海南 美黃寺 香徒²⁵⁾ 등의 결사 사례는 민간에서도 불교가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진표는 금강산에서 鉢淵寺를 창건하여 점찰법회를 열어 계법을 설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永深·融宗·佛陀 등에게 법을 전하여 속리산에서도 점찰법회를 열수 있게 하였다.²⁶⁾ 이러한 진표의 행보는 정식수계자로서, 그리고 신앙의 대중화를 펼치는 승려로서 대중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다.²⁷⁾

이러한 상황으로 추정할 때 경덕왕은 사회적으로 대중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표를 선택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로는 보살계 수계라는 의식적인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살계 수계의 경우가 많지 않고, 왕이 보살계를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어서 그 의미를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경덕왕이 보살계 수계의 시초인지 혹은 대중화 된 이후 받은 것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진표의 위와 영향력을 인식한 경덕왕은 수계라는 형태를 통해 공식적인 명

24) 『三國遺事』 卷5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25) 이 기록은 「美黃寺碑銘」의 미황사 연기설화속에 들어 있어 사료적으로 고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고려 후기의 승려 無畏의 기록에도 동일한 등장인물과 사찰 명칭이 기록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추정한다(윤선태,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新羅文化』 26, 129쪽).

26) 『三國遺事』 卷5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27) 정병삼, 1996, 「9세기 新羅 佛教 結社」 『韓國學報』 4, 205쪽

분을 확보하고자 했을 것이다.²⁸⁾ 이러한 추정은 보살계 수계 후 진표가 경덕왕의 시주를 바탕으로 불사확대를 하였고,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덕왕이 만난 승려는 大賢과 法海이다. 대현과 법해는 『삼국유사』 「현유가해화엄」조의 기록 이외에는 생애를 알 수 있는 전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승려가 나오는 「현유가해화엄」조의 기록은 불교사적으로도 정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경덕왕은 가뭄해결을 위해 753년에 대현을 內殿으로 불렀고 『金光明經』을 강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현은 우물물을 일으키는 신이함을 보여주며 가뭄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덕왕의 존경을 받았다. 당시 대현이 강의한 『금광명경』은 『인왕경』과 더불어 대표적인 호국경전이다. 물론 『금광명경』을 강설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문제의 해결방편이라고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중고기의 예에서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교경전을 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례들과 관련하여 경덕왕 역시 기존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경덕왕이 대현을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광명경』은 대부분 유식학과 관련이 있는 元曉·憬興·勝莊·道倫·大賢 등의 승려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강설 역시 법상종과 관계된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²⁹⁾ 그중에서도 대현은 경덕왕대 신라 3대 저술가로

28) 최원식은 신라 통일 이후 보살계 사상의 대중화 및 범망경의 유포와 유행에 대해서, 국왕의 통치 정당화에 기여하되 지배자들의 진흥을 삼가게 하고 선정을 유도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일반 민중들의 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전파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신앙의식과 불교적 효의 관념을 일깨우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보살계사상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1992, 『新羅 菩薩戒思想史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8~169쪽).

29) 최연식은 『金光明經』의 내용이 密敎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明朝이 귀국할 때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금광명경』은 법상종과의

손꼽힐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승려였다.³⁰⁾ 이에 경덕왕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대현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년 후 경덕왕은 역시 가뭄해결을 위해 법해를 황룡사로 초청했고 『화엄경』을 강하도록 했다. 법해는 대현의 성과를 미약하게 보며 바닷물을 일으켰다. 더하여 대현이 강설했던 내전을 떠나려가게 하고 感恩寺 불전의 계단 앞까지 바닷물이 차도록 하는 신이함을 보여주었다. 법해에 대해서는 이 기록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법해가 어떠한 성향이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덕왕의 초청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³¹⁾ 다만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법해가 강설한 『화엄경』의 종류에 대한 의미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는 당시 법해가 강설한 『화엄경』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덕왕대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60 화엄』 石經 제작의 경우와³²⁾ 754년에 이루어진 緣起法

관련성이 없는 반면 신라로 넘어오면서 법상종 관련 승려들에 의해 연구·수행되어 대현이 『금광명경』을 강설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佛敎學研究』 12, 246~248쪽).

- 30) 대현의 저술 중 『本願藥師經古迹』 2권이 있다. 대현은 이 저술을 통해 약사여래의 중생구제와 像法에 대한 상세한 해석, 그리고 약사정토의 특성을 열거하는 등의 인식을 보여주었다(정병삼, 2013, 「7~8세기 동아시아 『약사경』 해석의 특성-慧觀, 大賢, 善珠의 『약사경』 이해-」 『佛敎學報』 65; 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佛敎研究』 39). 이러한 유식학승으로서 대현의 다양한 저술활동과 폭넓은 의식은 경덕왕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755년에 경덕왕이 芬皇寺 藥師如來 銅像을 주조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실제로 대현은 경덕왕이 법해를 만난 이후에도 유식학승으로서 꾸준히 저술활동을 했으며 이러한 그의 교학은 신라는 물론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덕왕과의 관계를 일회적인 교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31) 기존 연구에서는 법해를 화엄종 승려로서 귀족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인물로 보기도 했으나 이 문제는 법해의 성향이 귀족세력과 같은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으며, 정치상황에서의 대립상황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師 발원의 『80 화엄경』 寫經, 그리고 755년 경덕왕의 첫 번째 부인인 三毛 夫人의 皇龍寺鐘 시주³³⁾ 등의 정황들을 통해 볼 때 경덕왕대 즈음에는 새로운 화엄이 유입된 후 점차 유포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덕왕은 이렇게 점차 변화하는 『화엄경』의 형태와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여러 입장을 두루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심을 더욱 고취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범해의 『화엄경』 강설의 사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화엄을 통한 신앙심의 확대와 고취라는 기대를 범해라는 승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³⁴⁾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영향력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일 것이다. 비록 설화이기는 하지만 범해가 일으킨 바닷물이 내전을 떠내려가게 하고 감은사의 불전 앞 계단까지 차올랐다는 내용은 범해의 강설 이후 기존보다 더 크게 대중교화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설이라는 의례형태와 친히 行香했다는 공식성 등의 단서를 통해 경덕왕은 여전히 기존의 왕실불교적인 형태로 승려들과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

- 32) 신라 화엄 석경은 조성 시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華嚴寺事蹟』의 자료를 인용하여 신라 문무왕대에 의상이 조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80 화엄』을 석경의 내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대 추정과 의상의 화엄교화에 알맞지 않다. 두 번째는 화엄사 강백인 陳雲應師의 추정으로, 신라 하대 정강왕에서 경순왕 사이에 『60 화엄』과 『40 화엄』을 새겨 조성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화엄석경에는 『40 화엄』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장충식의 견해로 경주 창립사지 출토의 범화석경과 경주 남산 칠불암 출토의 금강경 석경과 함께 8세기경에 함께 조성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김복순은 『60 화엄』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던 의상계 제자들에게 의해 신라 하대에 주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복순, 2002, 『新羅 石經 研究』 『東國史學』 37).
- 33) 『三國遺事』 卷3, 塔像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 34) 이러한 경향은 이후 신라 하대에 왕실에서 보이는 40화엄·60화엄·80화엄 三本이 공존하는 모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35) 박남수는 신라의 승정관련 중앙관사로 보이는 大道署가 경덕왕대 한화정책의 결과로 內道監으로 개명되었다고 보았다. 당과의 교류, 신라 승려의 당 내도랑에의 참여 등이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덕왕대의 불사나 범회 등의 의례 역시 당나라

지금까지 재위 13년 이전 경덕왕이 만난 진표와 대현, 그리고 법해의 경우를 통해 교류의 목적과 형태를 살펴보았다. 경덕왕은 상황에 알맞은 승려를 선택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대중화되고 신앙범위가 확대된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고자 했다. 이것은 기존의 왕실과 승려의 만남처럼 단순한 자문이나 형식적인 모습에 국한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강설이나 제 등의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Ⅲ. 후반기 승려교류의 변화

경덕왕 재위 13년 이후 재해와 불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려교류의 형태도 변화가 생겼다. 변화시점으로 생각되는 승려와의 만남은 재위 17년인 758년에 만난 表訓부터다.³⁷⁾

의 것과 흡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승니의 출가나 사찰의 창건, 토지의 기진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 승정관사에서 관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2013, 앞의 논문, 141~142쪽).

- 36) 『三國遺事』卷5, 避隱, 「迎如師」조의 迎如와의 교류도 이러한 성격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궁궐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은 아마도 경덕왕 재위 초반기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구는 화랑 출신인 道玉이 영여사가 있던 實際寺에 있었던 사실로 보아 법상종 승려라고 추측했고(1990, 「新羅中代 留學僧의 地盤과 그 活動」, 『史學研究』 41), 박윤진은 영여사가 사라졌음에도 경덕왕이 영여를 국사로 책봉한 것은 영여의 입장이 경덕왕과 일치하지 않았고, 경덕왕은 영여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다(2010, 「『삼국유사』 避隱篇의 의미와 ‘迎如師’·‘布川山 五比丘」,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1).
- 37) 표훈의 생존연대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데 표훈이 의상과 만난 해인 上元원년의 연호가 674년(당 고종, 신라 문무왕14)과 760년(당 숙종, 신라 경덕왕 19)으로 나뉘는 점이다. 표훈은 경덕왕대의 인물로 보면 표훈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간다는

均如(923~973)의 『十句章圓通記』에 따르면 표훈은 8세기 중반 경덕왕대에 왕경에 있는 皇福寺에 머물렀다. 그리고 김대성[大正角干]이 황복사를 방문해서 표훈대덕에게 화엄의 삼종삼매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³⁸⁾ 이때 표훈은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설하고 있었으며, 시기는 각간이라는 김대성의 신분을 통해 侍中職에서 물러난 75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⁹⁾ 또한 표훈이 천궁을 왕래했다는 기록과⁴⁰⁾ ‘신라의 마지막 성인’이라는 기록이 있어서⁴¹⁾ 표훈은 의상과 관련된 화엄종 승려였으며 신이한 법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경덕왕은 표훈에게 다른 능력이 아닌 天帝에게 후사문제를 부탁해달라는 신이한 능력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표훈은 그 신이한 능력을 통해 경덕왕의 후사문제를 해결해주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설화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문제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훈이 왕래한 ‘천제’ 혹은 ‘상제’는 불교 이전의 전통신앙과 관련이 있다. 인간사 전반을 지배하는 존재로 고구려 건국설화나 샤머니즘사상에서는 최고신으로 여겨졌으며 天祭의 대상자였으며, 도교에서도 天神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 불교 도입이후 부처님과 불법으로 대체되면서 점차 그 존재와 의미가 미약해졌지만 전통신앙의 형태는 여전히 민간에 남아 있었으며, 오히려 불교와 융합된 형태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덕왕이 표훈에게 천제를 만나 후사문제를 부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경덕왕의 인식과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기존의 형식적이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같은 인물로 보고 있다(김복순, 2013, 『삼국유사』 「의상전교」 조의 구성과 분석,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4; 김상현, 2013, 『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韓國古代史探究』 14).

38)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韓國佛教全書』 4, 63쪽)

39) 김상현, 2013, 앞의 논문, 265쪽

40) 『三國遺事』 卷4, 義解 「義湘傳教」

41) 『三國遺事』 卷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요한 후계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와 전통신앙이 섞여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국가의 문제가 단순히 왕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 역시 같은 방향과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덕왕과 표훈의 만남, 표훈과 천제와의 관계, 그리고 표훈의 신통력을 이용한 문제해결의 요청은 곧 경덕왕의 방법론적인 면에서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변화에 따른 교류형태는 경덕왕 후반기의 정치·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후에 언급될 승려들과의 교류형태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표훈과 교류하고 바로 다음 해인 759년, 경덕왕은 元表⁴²⁾와 교류한다.⁴³⁾

원표는 본래 三韓人이다. 天寶연간(742~755)에 입당하였고 서역 성지순례도중 支提山에서 心王菩薩을 만나 화엄경 80권을 받았다. 霍童山의⁴⁴⁾ 天

42) 원표에 관련된 자료가 『삼국유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송고승전』 「普照禪師彰聖塔碑」(884년), 하버드대학 도서관 소장인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跡記』(1457~1464)가 남아 있다.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跡記』는 1967년 이기백이 『考古美術』 8에서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跡」라는 제목으로 수록한 논문을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墨書寫本으로 총 9枚 18面이며 各面 8行 每行 16字이고 楷書體이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전반부는 寶林寺 創建緣起說話이고 후반부는 普照禪師彰聖塔碑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順天大學校博物館, 1995, 『迦智山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 地方文化資料叢書 第5, 97쪽). 다만 원표에 대한 자료는 원전의 성격상 다른 승려들의 자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

43) 「普照禪師彰聖塔碑」에는 “원표가 法力으로 政事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乾元 2년(759)에 경덕왕이 특별히 교시를 내려 長生標의 기둥을 세워주었다”고 되어 있어 경덕왕과의 교류사실을 알 수 있다.

44) 이 산은 중국의 남동부 福建省에 위치한 산이다. 周나라부터 唐나라까지 道家 약

冠菩薩을 찾아 支提石室에 머물렀다.⁴⁵⁾

이 기록에 의하면 원표는 菩薩住處信仰을 수행한 이후, 신라로 돌아와서 『80 화엄』을 바탕으로 天冠信仰을 전파한 고승이다.⁴⁶⁾ 기존의 연구에서는 신라 귀국 후 한화정책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⁴⁷⁾ 『80 화엄』 도입자로서 원표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⁴⁸⁾ 등으로 원표의 성격과 역할을 추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원표의 수행시기와 수행경로, 그리고 수학 장소 등의 행적 또는 성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기록에서는 광동산과 지제산, 그리고 천관산을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기록이 거의 없고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표가 지은 佛宮의 위치와 의미 역시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경덕왕과의 연결 고리는 천관보살신앙이 되지 않을까.

천관보살은 머리에 천관을 쓴 부처라는 뜻으로 불조인 비로자나불을 의미하지만 기록이 거의 없어 성격을 추측하기 어렵다. 다만 實叉難陀 譯의 80 화엄 『大方廣佛華嚴經』⁴⁹⁾과 이에 대한 澄觀 疏인 『大方廣佛華嚴經疏』⁵⁰⁾에서 천관보살신앙을 보살주처신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명이 수련한 곳으로 道教聖地로 불린다. 『송고승전』 卷21 「唐福州保福寺本淨傳」의 기록을 보면, 本淨이라는 인물이 광동산에 신선이 많은 것을 들었고 天冠菩薩이 領徒한 것을 알고 수행하러 갔다는 기록이 있다.

45) 『宋高僧傳』 卷30 「唐高麗國元表傳」(『大正藏』 895b06~895c02)

46) 이와 관련하여 원표가 『80 화엄』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會昌廢佛, 즉 845년 이후이기 때문에 원표의 나이가 120살이 넘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47) 여성구는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迹記』의 “禪師生於東國一隅出入西域中國智光遠照道眼遐矚以一標制作名號置於三國則非妙法之得於心者能如是乎入爲祖師出爲國師多以法力施於有故是以唐肅宗乾元二年特宣教旨設千間佛宮積長生標柱護久達不其盛矣乎”를 인용하여 원표가 경덕왕의 한화정책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1993, 「元表의 生涯와 天冠菩薩信仰研究」, 『국사관논총』 48).

48) 계미향, 2011, 「元表의 생애 재고찰」, 『문학/사학/철학』 27, 한국불교사연구소

49) 實叉難陀, 『大方廣佛華嚴經』(『大正藏』 10, T10n0279)

50) 澄觀, 『大方廣佛華嚴經疏』(『大正藏』 35, T35n1735)

즉 천관보살신앙은 보살주치신앙의 일환으로서 불국토신앙의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천관보살신앙의 성격 역시 자기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에게 보살도를 성취하여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중생교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앙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표가 천관보살신앙 수행자였고 신앙의 형태가 중생교화의 성격이었다는 추측이 맞다면 경덕왕이 원표에게 장생표주를 세워 주는 등의 범시에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다.

경덕왕 재위 후반기의 상황은 잦은 재해와 권력교체 등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덕왕은 원표에게 도움을 주고 장려하는 불사를 행함으로써 천관보살신앙의 대중교화적인 성격을 널리 퍼트리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의 확대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회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움을 인지한 후 변화된 방법이 나타난 교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경덕왕은 원표이후 더욱 새로운 면모를 가진 승려들과 교류한다. 먼저 재위 19년인 760년에 月明을 만난다. 이때는 二日並現과 함께 도성 동쪽에서 귀신의 북소리가 났다는 등의 전승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 시기 신라사회에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⁵¹⁾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경덕왕은 정해진 승려가 아닌 인연이 있는 승려[緣僧]로 월명을 만났다.

경덕왕 19년 庚子(760) 4월 초하룻날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 이에 朝元殿에 壇을 깨끗이 설치하고 靑陽樓에 행차하여 인연이 있는 승려를 기다렸다.⁵²⁾

51)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덕왕의 전제왕권 쇠퇴 혹은 유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한다(이기백, 1958,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김수태, 1983,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邕」, 『歷史學報』 99-100합집; 이영호, 1990, 「新羅 惠恭王代 政變의 새로운 解釋」, 『歷史教育論集』 13-14; 신형식, 1990, 「新羅 中代 專制王權의 展開科程」, 『汕松史學』 4 등).

월명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권2 기이 「명랑신인」 조와 「문무왕법민」 조에서도 언급되고는 있지만 성향을 확실히 알기 어렵다.⁵³⁾ 다만 화랑도에 속해있고 피리를 잘 불고, 신통력이 있는 승려였으며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祭亡妹歌를 지어 제사를 지낸 인물이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다. 월명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경덕왕이 우연히 월명을 만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즉 경덕왕은 이미 월명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로 내정해 놓았을 것이고 월명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월명은 경덕왕의 요청에 의해 향가인 도술가를 짓는다. 향가는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형태와 구전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⁵⁴⁾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삼국유사』에 현전하는 향가 중에서 유독 경덕왕대의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⁵⁵⁾ 이것은 곧 그 사회에서 향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창작은 고위

52) 『三國遺事』 권7 感通 「月明師兜率歌」

53) 월명이 사천왕사에 常居한다는 기록을 통해 명랑과의 연결로 밀교승려로 보는 견해(김승찬, 1986, 『鄉歌文學論』, 새문사, 301~303쪽)가 있는 반면, 신인종이나 법상 종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황패강, 1989, 「兜率歌研究」, 『新羅文化』 6) 등 다른 의견이 있어 월명의 성향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어렵다. 또한 월명의 신통력 역시 불교수행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것 역시 확실하지 않다(박광연, 2011, 「『三國遺事』 ‘月明師 兜率歌’의 一考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2, 109쪽). 향가의 성격에 대해서도 불교적 성격 이외에 巫佛 혼합적 성격(李聖周, 1999, 「鄉歌를 통해 본 新羅人의 意識構造-景德王代의 作品을 中心으로」, 『關大論文集』 27), 제의적인 성격(최선경, 2001, 「도술가의 祭儀의 性格」, 『淵民學志』 9)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54) 향가는 불교의 梵唄와는 구분되는 우리말 노래다. 향찰로 표기된 기록 문화이자 사실이 증시된다(조동일, 2007,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50쪽).

55) 현재 『삼국유사』에 남아서 전해지는 향가는 총 14이다. 진평왕대의 「薯童謠」, 「棼星歌」 2개, 선덕여왕대의 「風謠」 1개, 문무왕대의 「願往生歌」 1개, 효소왕대의 「慕竹旨郎歌」 1개, 성덕왕대의 「獻花歌」 1개, 효성왕대의 「怨歌」 1개가 전해진다. 반면 경덕왕대의 향가는 월명사의 祭亡妹歌·兜率歌, 忠談師의 讚耆婆郎歌·安民歌, 希明의 禱千手觀音歌 총 5개로 그 수가 눈에 띄게 많다.

층에 의해 이루어졌겠지만 그 창작의 의도가 민간에 향가가 유포됨에 따른 파급 효과를 노리고 창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덕왕은 향가를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과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고, 그 해결방법으로 월명에게 향가를 짓게 한 것이다.

이것은 도술가를 지은 뒤 “월명의 지극한 덕과 정성은 미륵보살을 감동시켰고 이 일을 조정과 민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는 기록과 “현실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월명에게 경덕왕이 공경의 뜻으로 명주 100필을 선사했다.”는 기록을⁵⁶⁾ 통해 경덕왕이 월명과 향가를 선택한 의도와 그에 알맞은 해결을 해준 월명에 대한 보답이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덕왕이 마지막으로 만난 忠談과의 교류 의미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경덕왕과 충담의 만남도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우연으로만 보기에 어렵다. 경덕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실한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모범적인 행실, 그리고 향가와 관련 있는 인물로 충담이 적격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3월 3일 왕이 歸正門의 누각 위에서 좌우에 이르기를 ‘누가 길에서 위의 있는 승려를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한 승려가 남의를 입고 앵통을 지고 남쪽에서 왔다.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누각위로 맞이하였다...왕이 어디서 오는가 물었더니 ‘매 3월 3일[重三]과 9월 9일[重九]마다 南山 三花嶺의 彌勒世尊에게 차를 달여 공양하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일찍이 스님께서 기과랑을 찬양한 사녀가의 뜻이 심히 높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고 ‘짐을 위해 백성을 편히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어주시오’라고 하니 승려가 즉시 명

56) 『三國遺事』 卷5, 感通 「月明師兜率歌」

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57)

그런데 이러한 충담과의 만남을 통한 문제해결은 월명의 경우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다. 월명의 도술가가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불보살의 힘을 입어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신라사회에 안정감과 희망을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라면, 충담의 안민가는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보다는 스스로의 소명을 인식하여 행동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민가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불교와 유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불교 경전 중 『金光明經』 『薩遮尼乾子經』 『王法正理論』 『瑜伽論』 등에는 국왕의 治國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금광명경』 「정론품」에는 국왕의 정치와 교화에 대해 국왕이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이 강조되어 있고,58) 『살차니건자경』 「정론품」에 국왕은 백성들의 실정이나 관리들의 功過를 파악하여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59)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 한 점은 『살차니건자경』과 『왕법정리론』에 신하의 역할을 규정해 놓은 「신하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60) 이러한 내용은 유교의 正名思想과 상통하는 것으로 불교와 유교에서 강조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안민가에 집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덕왕의 마지막 재위년도에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인

57) 『三國遺事』 卷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58) 왕의 과실[王之過失] · 왕의 공덕[王之功德] · 왕의 쇠손문[王衰損門] · 왕의 방편문[王方便門] · 왕의 가애법[王可愛法] · 왕의 가애법을 끌어내는 것[能引王可愛法] 등이 있다.

59) 金相鉉, 2007,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元曉와 憬興의 國王論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30

60) 『薩遮尼乾子經』 卷4, 「王論品」2(『大正藏』 9, 335c); 『王法正理論』(『大正藏』 31, 860a)

혼란, 그리고 잦은 천재지변과 그에 따른 식량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¹⁾ 이때 경덕왕은 모든 계층에서 현실을 증시하고 실천한다면 개인적인 문제의 극복은 물론 신라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그 의미를 담은 안민가를 짓게 했을 것이다.⁶²⁾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경덕왕의 해결책이 충담의 안민가 창작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경덕왕의 승려교류방법이 13년을 기준으로 전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기존 왕실 불교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표훈 이후로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형태를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은 경덕왕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진 정치·사회적 상황과 불교의 대중화와 더불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경덕왕은 재위 후반기로 가면서 승려들의 다양한 능력과 영향력을 통해 기존의 불교신앙 뿐만 아니라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의 안정과 통치에 힘을 얻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61) 기존 연구에서는 안민가가 창작된 것은 경덕왕과 진골귀족 사이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충담사의 祈願이라는 의견이 있다(최호석, 1998, 「경덕왕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 30, 251쪽). 그러나 이것은 충담이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왕이 충담을 찾아 부탁한 것이므로 알맞지 않아 보인다. 또한 안민가를 지어준 충담을 王師로 모시고자 한 것에 대해서 충담의 왕사 책봉 의도가 경덕왕 자신의 통치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거나(황병익, 2012, 「安民歌의 창작배경과 의미고찰」 『정신문화연구』 35, 183쪽) 충담이 왕사자리를 두 번 거절한 것은 곧 경덕왕에 대한 不信이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정황상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해석일 수 있다.

62) 황병익은 경덕왕이 위의를 갖춘 승려로 차려입은 승려가 아닌 衲衣차림의 충담사를 선택한 것은 곧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겉모습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백성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충담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았다(2012, 앞의 논문, 182쪽).

맺음말

경덕왕은 재위기간 동안 여러 승려와 교류했다. 승려들과의 교류 사례는 경덕왕 13년(754) 이후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이와 함께 재해와 관직교체가 빈번해지고 불사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중대 다른 왕들에 비해 교류 횟수가 높고 그 목적과 형태가 다양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교류의 형태와 문제해결의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경덕왕대 사회변화와 궤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단편적인 만남이 아닌 상황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알맞은 승려와 방법으로 교류했기 때문이다.

우선 재위 전반기에 만난 승려로 眞表와 大賢, 그리고 法海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경덕왕은 752년에 진표에게 보살계를 받았고, 가뭄해결을 위해 753년과 754년에 대현과 법해를 만났고 각각 『금광명경』과 『법화경』 강설을 요청했다. 하고자하는 방향과 문제해결을 위해 그에 알맞은 승려와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은 기존의 중대사회의 승려들과의 관계와는 달랐다. 단순한 자문이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직접 변화하는 사회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펴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나 강설 등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형태의 왕실 불교신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13년 이후 만난 승려들과의 모습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승려들과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758년에 表訓을 만나 신이한 능력을 이용한 후사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759년에는 중국의 도교 성지에서 천관보살신앙을 받아들인 元表에게 시주하였다. 또한 760년과 765년에는 月明과 忠談을 만나 향가를 짓게 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

기존의 형태는 물론 불교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해결 방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경향은 경덕왕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정치·사회적 상황과 불교의 대중화와 더불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즉 점차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경덕왕은 문제해결과 사회 안정을 위해 불교신앙 뿐만 아니라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에 알맞은 승려를 이용해 사회의 안정과 통치에 힘을 얻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승려교류에 대한 각각의 사례와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경덕왕대 내에서의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경덕왕의 변화가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경덕왕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공존했던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경덕왕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宋高僧傳』
『薩遮尼乾子經』
『王法正理論』
『十句章圓通記』
『普照禪師彰聖塔碑』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迹記』
實叉難陀, 『大方廣佛華嚴經』
澄觀, 『大方廣佛華嚴經疏』

2. 논저

- 李基白, 1958, 「新羅 惠恭王代の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김영태, 1969, 「新羅 白月山 二聖說話研究」 『趙明基華甲紀念 佛教史學
論叢』
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金相鉉, 1976, 「高麗時代의 護國佛教 研究-金光明經 信仰을 中心으로」 『檀
國大學校大學院學術論叢』 1
李基白, 1979,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 사경 관여자에 대한 고찰」 『歷史學
報』 83
정명삼, 1982, 「統一新羅 觀音信仰」 『韓國史論』 8
洪潤植, 1984, 「新羅의 佛教儀禮」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5

- 김승찬, 1986, 『鄉歌文學論』, 새문사
- 허홍식, 1987, 「新羅 佛敎界의 組織과 行政制度」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8
- 황쾌강, 1989, 「兜率歌研究」 『新羅文化』 6
- 신형식, 1990, 「新羅 中代 專制王權의 展開科程」 『汕耘史學』 4
- 呂聖九, 1990, 「新羅中代 留學僧의 地盤과 그 活動」 『史學研究』 41
- 이영호, 1990, 「新羅 惠恭王代 政變의 새로운 解釋」 『歷史敎育論集』 13·14
- 전덕재, 1992, 「新羅 祿邑制의 성격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 『歷史研究』 1
- 최원식, 1992, 『新羅 菩薩戒思想史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呂聖九, 1993, 「元表의 生涯와 天冠菩薩信仰研究」 『국사관논총』 48
- 이영호, 1993,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4
- 金英美, 1994, 『新羅 佛敎思想史 研究』, 民族社
- 김남윤, 1995, 『新羅法相宗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順天大學校博物館, 1995, 『迦智山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 地方文化資料叢書 第5
- 金壽泰, 1996,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 정명삼, 1996, 「9세기 新羅 佛敎 結社」 『韓國學報』 4
- 김남윤, 1997,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論叢』 78
- 심효섭, 1998, 「新羅 瑜伽派 信仰의 歷史의 性格 -7·8세기를 중심으로」 『東國歷史敎育』 6
- 최호석, 1998, 「경덕왕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 30
- 권우행, 1999, 「경덕왕대 향가를 통해 본 불교신앙 양상 연구」 『石堂論叢』 28
- 金相鉉, 1999, 「新羅 中代의 佛敎思想 研究-王室의 佛敎信仰을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85
- 李聖周, 1999, 「鄉歌를 통해 본 新羅人의 意識構造-景德王代의 作品을 中心으로」 『關大論文集』 27

- 申政勳, 2000, 「新羅 景德王代 王權強化策의 性格」 『동서사학』 6·7합집
- 최선경, 2001, 「兜率歌의 祭儀的 性格」 『淵民學志』 9
- 김복순, 2002, 「新羅 石經 研究」 『東國史學』 37
- 곽승훈, 2002,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 정태혁, 2002, 『한국불교용통사』, 정우서적
- 김선숙, 2003, 「古代 佛教信仰行爲에 대한 歷史的 考察」 『白山學報』 65
- 朴海鉉, 2003, 『新羅 中代 政治史 研究』, 국학자료원
-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佛敎學研究』 12
- 윤선태, 2005, 「신라 중대말~하대초의 지방사회와 불교신앙결사」, 『新羅文化』 26
- 배상현, 2006, 「신라 경덕왕대 불교사원과 지방사회」 『신라사학보』 8
- 金相鉉, 2007,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元曉와 憬興의 國王論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30
- 김재경, 2007, 『신라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民族史
- 조동일, 2007,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 김복순, 2008,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景仁文化社
- 박미선, 2008,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9
- 박윤진, 2010, 「『삼국유사』 避隱篇의 의미와 ‘迎如師’·‘布川山 五比丘」, 『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1
- 계미향, 2011, 「元表의 생애 재고찰」 『문학/사학/철학』 27
- 박광연, 2011, 「『三國遺事』 ‘月明師 兜率歌’의 一考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2
- 신형식, 2011,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景仁文化社
- 황병익, 2012, 「安民歌의 창작배경과 의미고찰」 『정신문화연구』 35
- 김홍삼, 2013, 「無極의 「關東楓岳鉢淵藪石記」 撰述」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4

사학연구 제112호(2013. 12)

- 김상현, 2013, 「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韓國古代史探究』 14
- 김복순, 2013, 「『삼국유사』 「의상전교」조의 구성과 분석」 『新羅文化祭學
術發表會論文集』 34
- 박남수, 2013, 「신라 大道署의 정비과정과 僧政體系의 변화」 『韓國思想史
學』 44
- 정병삼, 2013, 「7~8세기 동아시아 『약사경』 해석의 특성-慧觀, 大賢, 善
珠의 『약사경』이해-」 『佛教學報』 65
- 이병욱, 2013, 「『삼국유사』의 ‘賢瑜珂 海華嚴’의 사상적 의미」 『新羅文化
祭學術發表會論文集』 34
- 정병삼, 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佛教研
究』 39
- 조경철, 2013, 「『삼국유사』 「진표전간」의 진표행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4

Abstract

The exchange aspects and meanings of King Gyeongdeok and monk

Chun, Bo-Young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about changes in the nation along with the philosophical transitions and its meaning through the historical cases of several monks who had relationship with King Gyeongdeok directly or indirectl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spects of changes occurred in that era and its meaning through the examin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Gyeongdeok and the monks in particular concerning temporal context, goals of the relationship.

It is distinctive aspect that King Gyeongdeok had much more relationships with the monks than other Kings and had diversity of objectives for which the cases had aimed. It is noted that the number of exchanges between the King and monks had significant increasing from the 13 years of King Gyeongdeok as well as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sters, replacements of government positions, and constructions of new temples also. In particular, it is interesting that the change of the society had coincidence with that of the aspects of relationship and way to solve social problems as the reign went toward the second half of the period. Because it shows that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Gyeongdeok and the monks represe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philosophical matters.

First of all, an appointment of Jinpyo, Daehyeon, and Beobhae in the first period of the reign had difference with the appointment of high priest in the middle period of the Shilla dynasty. It is postulated that the King might have a purpose to participate in the new period and also intended the increasing of influences to the nation. While the changes, however, an official and ritualistic royal Buddhist events, such as Jae(齋) or teaching(講說) were maintained as before. On the other hand, several different aspects are observed in the way the relationship formed after the 13 years of the reign. To Pyohun, the King required a special occasions which had some miraculous phenomenon to settle the problem of son of the King, and to Wonpyo, who had received a Bodhisattva faith cheongwan from the Taoist holy land gave a official generosity. Furthermore, there was resolution that the King had met Wolmyong and Chungdam and requested them to compose Hyangga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hese phenomena seemed to be caused by the combination with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which had become worse and the widespread of Buddhism as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went to the late half. That is, the King Gyeongdeok who seemed to feel the limits of the resolutions used before had aimed to achieve influences and power to control and stabilize the nation using Buddhism with another ways to guide people through the monks who could afford to execute the missions in the context of gradually changing society.

Keywords : King Gyeongdeok(景德王), Exchange aspects(交流樣相),
Jinpyo(眞表), Daehyeon(大賢), Beobhae(法海), Pyohun(表
訓), Wonpyo(元表), Wolmyong(月明), Chungdam(忠談)